

##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sup>1</sup>

박 미 선 · 유 양 숙<sup>1</sup>

### Abstract

### Burde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Mi Sun Park and Yang Sook Yoo<sup>1</sup>

Registered N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College of <sup>1</sup>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burde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nurses who take care of cancer pati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237 nurses working at the oncology unit of hospitals with over 500 beds in Seoul and Gyeonggi-do.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 from the February to March, 2005. Data were analyzed throug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AS.

**Results:** 1. The item that showed the highest level of burden was 'I feel limited even if I make efforts to reduce patients' pain.' Burden was high in those group both who were younger than 35 years old and who had clinical experiences caring cancer patients for 3~4 years. 2. The item that showed the lowest level of job satisfaction was 'the possibility of promotion'. Job satisfaction was high in those group both who had a spouse and were head nurses or incharge nurses. 3. The item that showed the lowest level of quality of life was 'I am physically exhausted'. Over 35 years old who had a spouse, and over 2,000,000 won monthly income made a high score in the quality of life. 4.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among burden, job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5. The major factor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was burde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support system to improve nurses' work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Key Words:** Burden, Job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 서 론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와 재발이나 전이가 된 진행성 암 환자 및 말기 암 환자를 돌보게 된다.

암 환자들은 질병과 관련된 증상,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 통증, 신체 조절 능력의 상실, 사회적인 고립으로부터 오는 소외감 및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총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1].

간호사는 환자 및 그 가족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다른 의료진보다 자주 가깝게 접촉하고 환자에 대한 감정적 개입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위를 도모하고, 말기 환자인 경우에는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2]. 그러나 말기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 간호사 자신들은 피로, 슬픔, 우울, 불안, 두려움 등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3]. 또한 간호사들은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통이 경감되지 않을 때나 상태 호전이 없는 환자를 돌보는 경우, 책임감과 부담감이 높을수록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4,5]. 특히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를 가까이에서 접하는 간호사의 경우 부담감이 과중하고 직무에 불만족하게 되면 환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무관심해지거나 회피할 수 있다[6]. 간호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고, 부정적인 업무 태도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며 직무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간호사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간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7,8].

간호사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 교대 근무 등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9], 특히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신체적 소진을 경험하기 때문에[10,11], 이들의 안녕 상태와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보완 및 지지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 소진에 대한 연구[8,12-15]와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과 태도, 우울[2,16], 삶의 질과 자기 효능감[9]등이 있었다. 또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진, 대처유형,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1,10,11]가 이루어졌으나 부담감과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파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과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여,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대상 및 방법

### 1. 대상

대상자는 경기도 및 서울지역에 있는 500병상 이상의 4개 종합병원 종양 병동에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237명이었다.

###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3. 측정도구

#### 1) 부담감

부담감은 이관희(1985)[17], 김연희(2001)[16] 및 조계화(2002)[5]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14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7이었다.

### 2) 직무 만족도

직무 만족도는 단축형 미네소타 직무만족 설문지(MSQ,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이상금(1996)[18]이 번역한 20문항 중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부적합한 2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는 1점, 매우 만족스럽다는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9이었다.

### 3) 삶의 질

삶의 질은 노유자(1988)[19]가 개발한 47문항 중 22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2이었다.

부담감,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 도구는 간호학 박사 과정생 1명, 중앙 병동 수간호사 2명, 호스피스 간호사 2명, 간호학 교수 1명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 4. 자료 수집 방법

2005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중앙 병동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각 병원 간호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총 239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완전한 2부를 제외한 237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Window용(ver. 8.1)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부담감,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제시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한 후 Duncan test로 검정하였다.

부담감,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알아보았다.

## 결 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만 35세 미만이 86.9%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73.0%였다. 학력은 4년제 졸업이 51.9%, 3년제 졸업이 39.7%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54.8%였다.

간호사 경력이 1~2년은 38.8%, 3~4년은 31.7%, 10년 이상은 16.0%였다. 암 환자 간호 경력이 1~2년은 45.2%, 3~4년은 30.8%, 5~9년이 12.6%였다.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67.9%였으며,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87.3%였다. 병원 내에 호스피스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는 42.2%였다(Table 1).

### 2. 부담감

부담감은 5점 만점에 2.78점이었으며, 부담감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해도 한계를 느낀다(3.66점)였으며, 다음은 '환자의 고통 앞에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3.64점), '환자가 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3.29점)의 순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은 연령, 암 환자 간호경력,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5세 미만 군이 35세 이상 군보다 부담감 정도가

Table 1. Burde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	Burden		Job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Mean±SD	F/t (P)	Mean±SD	F/t (P)	Mean±SD	F/t (P)
Age (years)							
>35	206 (86.9)	2.81±0.38	2.16	2.92±0.43	-1.32	3.20±0.50	-2.03
≤35	31 (13.1)	2.65±0.39	(0.032)	3.30±0.43	(0.190)	3.40±0.48	(0.043)
Spouse							
Yes	64 (27.0)	2.75±0.39	-0.81	3.05±0.46	2.56	3.37±0.50	2.76
No	173 (73.0)	2.80±0.39	(0.422)	2.89±0.41	(0.011)	3.17±0.49	(0.006)
Education							
College	94 (39.7)	2.80±0.38		2.92±0.34		3.18±0.45	1.47
University	123 (51.9)	2.77±0.38	0.19	2.94±0.46	0.19	3.23±0.50	(0.232)
Graduate school	20 (8.4)	2.77±0.46	(0.827)	2.95±0.59	(0.824)	3.39±0.70	
Religion							
Yes	130 (54.8)	2.79±0.38	0.12	2.90±0.43	-1.29	3.20±0.53	-0.89
No	107 (45.2)	2.78±0.40	(0.901)	2.97±0.43	(0.200)	3.25±0.47	(0.377)
Nursing antecedents (yrs)							
< 3	92 (38.8)	2.73±0.39	2.28	2.79±0.31	0.89	2.91±0.34	1.12
3~4	75 (31.7)	2.86±0.41*	(0.080)	2.84±0.32	(0.447)	3.00±0.33	(0.342)
5~9	32 (13.5)	2.86±0.31		2.82±0.42		2.97±0.36	
≥10	38 (16.0)	2.72±0.36*		2.89±0.38		3.01±0.36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161 (67.9)	2.78±0.37	-0.03	2.90±0.39	-1.44	3.17±0.48	-2.42
≥200	76 (32.1)	2.79±0.39	(0.974)	3.00±0.50	(0.154)	3.34±0.54	(0.016)
Level of position							
Staff nurse	207 (87.3)	2.80±0.39	2.12	2.91±0.42	-2.52	3.20±0.49	-1.31
Incharge & Head nurse	30 (12.7)	2.65±0.38	(0.035)	3.11±0.47	(0.013)	3.33±0.60	(0.192)
Hospice department							
Yes	100 (42.2)	2.78±0.41	-0.20	2.91±0.38	-0.80	3.25±0.48	0.62
No	137 (57.8)	2.79±0.38	(0.841)	2.95±0.46	(0.426)	3.21±0.52	(0.535)
Antecedents of cancer care (yrs)							
<3	107 (45.2)	2.72±0.39	3.13	2.81±0.32		2.94±0.35	
3~4	73 (30.8)	2.88±0.41*	(0.026)	2.83±0.31	0.68	2.97±0.33	0.37
5~9	30 (12.6)	2.85±0.31		2.79±0.45	(0.565)	2.95±0.41	(0.776)
≥10	27 (11.4)	2.70±0.36*		2.91±0.36		3.02±0.29	
Total	237 (100.0)	2.78±0.39		2.93±0.43		3.22±0.50	

\*duncan test

높았으며( $P=0.032$ ), 암 환자간호 경력이 3~4년 군이 10년 이상 군보다 높았다( $P=0.026$ ). 또한 일반간호사군이 수간호사와 책임간호사 군보다 부담감이 높았다( $P=0.035$ )(Table 1).

### 3. 직무 만족도

직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3점이었으며, 직무 만족도가 높았던 문항은 '동료 간의 관계'(3.59점)였고, 다음은 '직무를 처리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Table 2. Mean Score of Burden

Items	Mean±SD
I feel limited although I struggle to do something to reduce patients' pain.	3.66±0.75
I sometimes fall in dilemma in front of patients' pains.	3.64±0.81
Patients seem to demand too much.	3.29±0.80
I feel that what I do for the patients is not enough.	3.22±0.83
Seeing patients' death, I feel guilty for my insufficient care for them.	3.14±0.81
I feel frustrated at and even guilty for myself who cannot do anything in front of patients' pains.	3.13±0.86
I feel uneasy in my relation with patients.	2.89±0.83
I feel nervous and depressed because of my relation with patients.	2.77±0.87
I think that patients are not thankful for what I do for them.	2.38±0.82
It seems to me that patients think no one except me can take care of them.	2.35±0.73
I feel that patients control me as they want.	2.27±0.81
I feel that I contribute to the fine condition of patients.	2.15±0.58
I am worried about patients' future.	2.11±0.60
I am useful to patients.	2.00±0.59
Total	2.78±0.39

Table 3. Mean Score of Job Satisfaction

Items	Mean±SD
Are you satisfied with the possibility of promotion in your workplace?	2.39±0.73
How many opportunities do you have to raise your social standing through the job?	2.58±0.72
How is your wage compared with your work load?	2.62±0.76
How many opportunities do you have to display your creativity in doing your job?	2.69±0.72
How is your work load given at your workplace?	2.70±0.69
How many opportunities do you have to do new tasks?	2.70±0.73
How many opportunities do you have to work according to your own judgment?	2.81±0.76
Are you satisfied with the hospital's policies (or regulations) and the method of implementing the policies?	2.83±0.67
Are you satisfied with opportunities to direct others in the workplace?	2.89±0.65
How many opportunities do you have to work as you want autonomously without others' interruption?	2.89±0.71
How many opportunities do you have to display your abilities?	2.95±0.64
Are you satisfied with your work environment?	2.95±0.77
Do you feel that you are achieving something through your job?	3.13±0.75
Are you satisfied with people's recognition of what you have done well?	3.19±0.66
Are you satisfied with the security of your job?	3.19±0.79
Are you satisfied with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through your job?	3.29±0.81
Can you do your job without guilty conscience?	3.38±0.70
Are you satisfied with your relation with colleagues?	3.59±0.65
Total	2.93±0.43

않는 것'(3.38점), '직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3.29점)의 순이었다(Table 3). 반면에 직무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문항은 '직장에서

의 승진 가능성 정도'(2.39점)였으며, 다음은 '직무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정도'(2.58점), '업무량과 대비한 급여 수준정도'(2.62

Table 4. Mean Score of Quality of Life

Items	Mean±SD
Do you feel these days that you are as worthy to live as others?	3.66±0.73
Do you regard yourself as important these days?	3.58±0.79
How do you feel your relation with those whom you work together with these days?	3.57±0.59
Do you feel rage these days?	3.51±0.96
Do you trust others in your life these days?	3.50±0.68
Do you feel that you are as competent as others these days?	3.48±0.72
Do you easily feel defeated these days?	3.46±0.88
Do you feel fear of every matter these days?	3.44±0.87
Do you adjust yourself well to the change of environment these days?	3.39±0.70
Do you have clear purposes of life these days?	3.32±0.82
Do you have regular meals these days?	3.31±0.95
How do you feel your life in general these days?	3.23±0.74
Do you live an enthusiastic life these days?	3.17±0.84
Do you feel depressed these days?	3.16±0.97
Do you feel anxious these days?	3.09±0.85
Do you feel mentally exhausted these days?	3.04±0.91
Is your mind peaceful these days?	3.03±0.84
How do you feel your general condition (energy, spirit, strength) these days?	3.02±0.82
Do you feel lonely these days?	3.00±0.89
Do you feel physical discomforts (e.g. light pain) these days?	2.89±0.89
Do you have many worries these days?	2.72±0.85
Do you feel tired in your body these days?	2.31±0.78
Total	3.22±0.50

점)의 순이었다.

직무 만족도는 배우자가 있는 군이 배우자가 없는 군보다 높았으며( $P=0.011$ ), 주간호사와 책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높았다( $P=0.013$ )(Table 1).

#### 4. 삶의 질

삶의 질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2점이었으며, 삶의 질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남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3.66점)였고, 다음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3.58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3.57점)의 순이었다. 반면에 삶의 질이 가장 낮았던 문항은 '신체적 피로를 느낀다'(2.31점)였고, 다음은 '걱정거리가 많다'(2.72점), '신체적 불편감을 느낀다'(2.89점)의 순 이었다(Table 4).

삶의 질은 35세 이상 군( $P=0.043$ ), 배우자가 있는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of Burde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Job satisfaction r (P)	Quality of life r (P)
Burden	-0.38 (.000)	-0.50 (.000)
Job Satisfaction		0.44 (.000)

군( $P=0.006$ ),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상 군이 각각 다른 군들보다 높았다( $P=0.016$ )(Table 1).

#### 5. 부담감,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부담감과 직무 만족도( $r=-0.38$ ), 부담감과 삶의 질( $r=-0.50$ )은 역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r=0.44$ )은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Table 5).

Table 6.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or Quality of Life

Variables	Partial R <sup>2</sup>	Model R <sup>2</sup>	F	P
Burden	0.25	0.25	77.56	0.000
Job Satisfaction	0.07	0.32	26.08	0.000
Antecedent of cancer care	0.01	0.33	4.43	0.036

## 6.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부담감으로서 2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직무 만족도 7%, 암 환자 간호 경력 1%를 첨가하면 삶의 질의 총 33%가 설명되었다(Table 6).

### 고 찰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일반 병동의 업무와는 달리 환자가 암 진단을 처음 받은 이후로부터 말기에 이르러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적극적인 치료 및 중재, 환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나타내는 다양한 정서적 상태에 따른 간호를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동안 이상과 현실간의 차이에 따른 실망감과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0,11] 또한 반복되는 입원과정 끝에 죽어 가는 환자를 보는 슬픔, 조절하기 어려운 신체적 증상을 겪는 환자를 보는 안타까움 및 과중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0].

특히 말기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간호사들은 많은 부담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2,16,20], 입중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여러 가지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환자를 질 환으로만 인식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21]. 이러한 경우 환자는 간호사가 느끼는 두려움, 불안, 방어기제 및 위축 등을 감지하게 되어 치료적 의사소통과 심리적 돌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말기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히 맞도록 돕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와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7].

본 연구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은 2.78점으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이 2.91점이었던 김연희(2001)[16]와 이소라(2003)[2]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부담감이 높았던 문항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언가 해 보려고 노력해도 한계를 느낀다', '환자의 고통 앞에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였다. 이는 이소라(2003)[2]의 연구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에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과, 최송희(1997)[22]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임종 간호 수행에서 부담감이 높았던 것과 유사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이 '환자와의 관계에 죄책감을 느낀다'[16], '임종환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23], '고통 받는 대상자를 보면서 직업적 한계성을 느끼게 되고 환자의 죽음 뒤 후회, 죄책감을 겪는다'[5]고 보고한 여러 연구들과 의료의 한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던 이현실(2001)[13]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35세 미만, 임상 경력과 암 환자 간호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 부담감이 높았다. 김연희(2001)[16]와 이소라(2003)[2]의 연구에서도 35세 미만에서 부담감이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경력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짧은 간호사에 비해

직무에 익숙해져 있어 안정적이며 대처가 빠르고 숙련된 간호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 암 환자 간호 경력이 짧은 간호사도 중증의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자의 변화에 대하여 신속한 관리를 하는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암 환자를 돌보는 병동의 특성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가 많고, 민첩한 중재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24]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교육이 필요하며, 부담감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돌봄 중심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임종 간호를 제공하는 숙련된 간호사들을 역할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임상 경력이 적은 간호사들이 임종 간호의 부담감을 줄이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간호사 자신의 성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5].

본 연구에서 직무 만족도가 높았던 문항은 동료 간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 일을 잘 했을 때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정미영(2004)[26]은 동료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적으로 친밀해지며 바쁘거나 힘들 때 서로 도우며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Sharon(1994)[27]은 동료 간호사로부터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이 직무만족의 요소라고 하였다. 동료 간호사의 지지는 가족의 지지보다 더 큰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 스스로 사회적 지지 집단을 많이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10].

또한 행정적 측면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방법, 성격 유형에 따른 특성 이해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동료 간에 화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간호사의

업무 수행과 기여도에 대한 인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직무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문항은 직장에서의 승진 가능성 정도였다. 과거 연공서열식 승진제도에서 최근에는 점차 능력 위주의 인사제도의 적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직무 만족도가 낮았던 김은주(2002)[1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승진과 관련된 인사정책에 대한 다각적 연구와 형평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면 평가를 통한 공정성이 보장된 공식적인 인사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병원 정책과 실행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직원이 병원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의 확대 등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직무 만족도가 조직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발전도 꾀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조직 관리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15]. 이에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애로 사항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병원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물리적으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것이 직무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군과 수간호사와 책임간호사 군이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8,14] 배우자가 있는 군은 가족지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직위가 높으면 독자적으로 판단할 기회나 일의 숙련성, 보상과 성취감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인 반면, 신규이거나 업무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이 낮았던 문항은 신체적인 피로와 불편감이었다. 이는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비해서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신체적인 소진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0].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 등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의욕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자와의 상호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효율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11]. 따라서 간호사들이 건강유지 및 증진을 통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수입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수입정도가 삶의 질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데, 경제생활에서 가정 월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았던 조연경(2000)[9]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이 낮았으며, 부담감과 직무 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

직무 만족도는 간호사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간호의 질도 좌우된다[28]. 그러므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과 요구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보상이나 교육, 정서적인 지원, 인력 배치, 직무 환경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 실제적인 대책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획득하고 직업적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근무할 때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이 가능해짐으로써, 암 환자의 삶의 질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질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병원의 행정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요 약

**목적:** 본 연구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파악하고 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연구 대상은 경기도 및 서울에 있는 500병상 이상의 4개 종합병원 중양 병동의 간호사 237명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5년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였다. 연구도구로 부담감은 이관희(1985), 김연희(2001)와 조계화(2002), 직무 만족도는 이상금(1996), 삶의 질은 노유자(198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Duncan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결과:** 1. 부담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78점, 직무 만족도는 2.93점, 삶의 질은 3.22점이었다. 2. 부담감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도 한계를 느낀다'였다. 부담감은 35세 미만 군에서, 임상 경력과 암 환자간호 경력이 각각 3~4년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3. 직무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문항은 직장에서의 승진 가능성 정도였다. 직무 만족도는 배우자가 있는 군, 직위는 수간호와 책임간호사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4.

삶의 질이 가장 낮았던 문항은 '신체적 피로를 느낀다'였다. 삶의 질은 35세 이상 군, 배우자가 있는 군, 수입이 200만원 이상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5. 부담감과 직무 만족도, 삶의 질은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 6.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부담감이었다.

**결론:**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과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과 부담감 감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박란희, 맹광호. 암 환자를 간호하는 임상간호사의 소진 경험과 대처유형. 한국의 산업의학 2003;42:112-23
- 2) 이소라. 말기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부담감과 우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 이소우, 이은옥, 안효섭, 허대석, 김달숙, 김현숙, 이혜자. 한국형 호스피스 케어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대한간호 1997;36:46-9
- 4) 강경아. 고통 개념 분석과 개발: 혼종 모형 방법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1997;26:290-303
- 5) 조계화. 말기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고통 경험 척도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002;32:243-53
- 6) Alexander DA, Ritchie E. Stress and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terminal patient. J Palliat Care 1990; 6:28-33
- 7) 인숙진. 간호사를 위한 호스피스 기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삼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8) 김향옥. 일부 대형병원 임상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 및 소진 간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9) 조연경. 간호사가 지각한 삶의 질과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10) 서민정.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과 대처 유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11) 김현숙. 암 병동 간호사와 일반 병동 간호사의 건강 상태와 직무 스트레스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12) 차미숙. 대학병원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와 소진 경험정도의 상관관계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13) 이현실. 임상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14) 김은주. 간호사의 소진 경험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15) 구정복.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따른 복지대책.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16) 김연희. 말기 암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부담감과 태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17) 이관희. 뇌 손상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부담감 및 우울 정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 18) 이상금. 간호사의 지각한 자율성, 그룹결속력과 직무 만족도, 조직몰입, 직무동기, 재직의도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19) 노유자. 서울 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 20) 강성례, 이병숙. 임상 간호사의 임종 환자 간호 체험. 간호행정학회지 2001;7:237-49
- 21) Gow CM, William JI. Nurses' attitude toward death and dying: a causal interpretation. Soc Sci Med 1997; 11:192-8
- 22) 최송희.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태도와 간호수행 정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23) 엄영란. 말기환자 간호에서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 문제에 관한 연구 사례 분석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24) 이정숙, 김수진, 장금석. 초일류 간호의 조건. 서울: 현문사, 1999
- 25) 이명선. 임종환자를 돌보는 병원간호사의 경험: 감정에 충실하면서 자신 추스리기. 대한간호학회지 2003;33:553-61
- 26) 정미영. 병원 중심 가정방문 간호사의 역할인식, 역할갈등 및 직무만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27) Sharon AL. Job satisfaction of home health nurses. Home Healthc Nurse 1994;12:21-8
- 28) 김숙영. 대학 부속병원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